

13

항공사령관 한일무 증장

(1908 - 1972)



## 항공 사령관 한 일무 중장

한 일무 선생은 1908년에 8월 12일에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탄생하시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국을 침범한 후 한 선생의 부모들은 외국의 아들 하나를 등에 업고 1916년에 원종변강 연해구 백씨예는 구역에 와서 정착하시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어린 아들도 학교에 보내어 공부하게 하였다. 백씨예는 구역은 러시아 땅이라 하지만 두만강 건너 첫 지역인 것만 침묵한 과 지리상으로 강하나가 중간을 막았지만, 평의 것 지형을 보거나, 보흥알로 산천이나 기록이 북한과 아주 유사하다. 때문에 로령에 들어온 식물은 백씨예는 구역 어느 곳에 와서 멈추게 되었다 이 지역은 북한보다



2  
초량이 비록하여 하천에 물고기도 없고 해변강이 다  
가라져서 내색이 풍부하였으며 고흥상으로 볼 때 월도나  
수려한 도시 항구들과 일찍이 연결되어 사람 살기에는  
아주 편리하였는데,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못  
살게만 굴러 "바다가 오로만" 부르던 일본군사들의 고  
락산이 가 보이지 아니하니, "만심태평" 살 길에 들어선 것  
같이 되었다. 한선생의 부모들은 특별히 기뻐한 것은  
자유로운 로렌지에 와서 왜놈들의 영향이 없이 독재하도  
를 공부시키는 일이 대단히 기뻐했다.

한 선생은 8세 때에 노복교에 입학하여 1920년에  
노복을 나온 다음 뱃씨에즈 구역 중학교에 다니는 노복기독교 시  
에서 1926년에 고종으로 마감하게 되었다. 그 후 한 선생은  
농촌에서 큰 공청위원회 지도원이자 청년회 중 등에서 공  
청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유한 지주 집안에서 돌아 다니며 고령  
로동을 하였다. 1930년으로 부터 원동에서 농촌정리 협동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선생은 협동조합 공청위원  
장, 협동조합 당위원장 일을 조직진행하였다. 1930-1932  
년 사이에는 한 선생이 블라지 워브스크 고등학교에서 2년  
간 공부한 다음 뱃씨에즈 구역 당 지도원으로 1932-1934년  
까지 일하시고 1944-1946년에는 하바롭스크 공산대학에  
서 2년간 공부하신 다음 1937년까지 계속 구역 당 지도원  
으로 일하시었다. 1937년 강제 퇴직하게 하여 한 선생은 무즈



백 공화국 타슈켄트주 중월척구역에 도착하였다. 한 선생은 3,  
군당위원회 의과전에 의하여 두란 협동조합 당위원회 위  
원장으로 1940 년까지 일하시었다.

1941년 2월 15 일에 한 일부 선생은 국가안전 위원회  
5호실로 모시라는 편지를 단전부 기관 중위에게 받고  
그 즉시에서 기관은 약 2시간 동안 기다릴하여나 집에  
잠간 가서에서 모스크바로 출항가실 준비를 하여가지고  
사무실에 다시 모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군 4년어상어나  
일하시던 협동조합 지도부라도 똑 "하게 연사로 못하고  
사업언제지도 별로없어 그러나 한 선생은 그날 저녁으로  
모스크바에 들어가는 기차에 몸을 실고 오주야반 결의  
서 모스크바 까산역에 도착하자 기차 창문 앞  
에 와서 망영하여 주는 기관이 있어 여주동이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거기가 바로 외국으로 파송하  
는 정찰일군들을 준비하는 학교였다. 한 선생은 학교라  
하기에 큰 강당도 없고 굉장한 사무실도 없어서 교장이  
나 교무주임등을 만나 만나 하되고 학생적으로 준비하  
고 있었으나, 아무런 사무실에도 가지않고 직접 숙소에  
대러다 주면서, 여기에서 쉬사르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셔  
고, 일르하시라고 하였다. 기관은 도라서 나가면서 레 달아  
침 9시엔 기관이 보낼하여나 그 선생께서 지시한 지시를  
받으시라고 하였다.



한성생은 그이튿날부터 독방에서 독학을 하면서 과목별로  
 단선생들을 만나 과제도 받고 물기도 하였으나 조선사람이라고  
 눈한영도 만나볼 일 없었다 일주일 몇번씩 끙끙해야 나라하여  
 학방 몇명 똥안대 가면 전혀 보지않던 새사람들 나쁘리, 원족  
 도 전부다 다른 나라 원족 들어왔다. 그들은 소련말도 잘 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공부하기 아주 어려웠었다. 한성생은 이  
 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시고 1943년 초에 원동변강 불라지  
 보쓰크에 주둔하고 있는 대평양 함대 경찰부에 파견받아  
 가게 되었다. 한일우 선생도 잘 알고 계셨지만 이시기에 하  
 유진은 근방에서 많은 한인 청년들과 또한인 지식인들  
 리들을 보쓰크바 경찰학교에 불러다가 2년씩, 3년씩  
 공부시켜 조선지역과 안주지역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보쓰크바 경찰학교는 비밀리에 부치고, 그를 보충 "나리라  
 노브" 학교라 하였다. 학교를 나오기전, 학습과정에서나  
 공부를 필한라함에도 그학교를 경과한 사람들은 서로 보  
 지도 못하고, 누가 어느때에 어디로 파견 되었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 파견 계획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였으  
 며, 또 서로 모르게한것은 만약 한사람이 체포된다고 하  
 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기 위해서였다.  
 경찰계획은 대략 대평양 함대 계획, 원동특별독립군단 제1,  
 제2 전선, 소련공산당-국제공산당 계획, 국제혁명자육성회 계획,



지어는 극세 적십자사 계통까지 경찰사업을 하였으며, 상대방  
 의 병력과 사상 동태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데 어여러가  
 지 경찰공에서로 해군경찰이 제일 어렵다고 하여야 맞을것이다. 그것은  
 리체적으로 상<sup>11</sup>하여보나도 <sup>11</sup>번한 사실이지만, 실지 그것을 체험하고, 다음  
 번 옛날, 예적으로 되었을시 그들의 회고에서 알려진 현실이다. 생각  
 만 하여로 - 잠무함, 해변 정황을 모르면서 근무반도를 타고 그에 접근  
 하리란, 푸꾸간에 끌려들어가는 노와 무당이 다를것어 맞으랴? 이런  
 전후사명을 한일무 선생은 두번이나 - 1944년에, 1945 삼반기에  
 실행하였다. 고향산천이란, 그 땅에서 탄생하여나는 사람에게 결정  
 적 영향을 주는바, 특히 사람의 정신상태, 맘씨와 행동, 걸음거리, 지  
 아는 풍격과 성대 모소리까지 결정 짓게된다. 한일무 선생이 아나고  
 다른 소련 태생, 다름사람 들을 들어 보나있더라하면 그 눈치바라를 일  
 제의 경찰 앞에서 훑어나보게 어렵았을것이다. 우리는 어린 실례  
 를 많이 알고있다. 기권골노르에서 파견된 성진태 생신봉남이를  
 실례로 들어보면 - 1941-1945년 사이에 각 대학들에서 약 81명의  
 대학생들이 경찰의무를 받고 3천반드에 들어갔었는데 전부다  
 1개월 - 3개월 이내로 빛잡혀 일본 형방들의 손에서 죽었는  
 데, 생봉남이는 2년 동안이나 평양, 원산, 함흥 쪽으로 돌아  
 다니려 자기과업을 수행해나갔다. 그러나 말미막에 원산부근에서  
 붙잡혀 감옥에 구금 되었다가 1945년 8월 16일에 평양,  
 감옥에서 사형<sup>11</sup>하였다. 그대신 <sup>11</sup>브랴르<sup>11</sup>나 <sup>11</sup>골노르에서 파견되었던



타슈켄트 경제대학 학생 김예필은 체포되자, 신봉남에 대하여 작성한 투정들을 대어준 한으로 신봉남이는 붙잡히고, 김예필은 체포되었으나 사형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소련군을 맞이하 였다. 소련군들은 소련말을 멋스럽게 잘하는 죄수를 석방하였다고 약 3개월간 총역원으로 훌륭한 호의복에서 지내었다. 그러나 1946년 추수 시평양감옥의 전반 비밀물건들이 소련군 경시안전부에 넘어오자 김예필에 대한 모든 사실이 전부다 적발되어, 그는 모스크바에 실려가 군사 재판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았으나 당시 소련법은 전후 사형 법을 20년 징역으로 교정하였기 때문에 사형을 모면하고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그것은 적당한 처벌이었다.

한일부 선생은 전후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는 다시 잠수함의 덕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매번 육로로 리용하여 동만주 지역을 통과 하여 다시 소련 국경을 넘어오곤 하였다. 1945년에는 전후 임무 수행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배에 모로기는 하였으나, 이번 에는 잠수함이 역시 타 큰 군함에 몰려 다니게 되었으며, 군함들은 전후원들로 초안된 뒤, 경찰 위임을 받아 4갈때에는 12번 죽 을 길을 걸는다고 생각하고 혼자 속생각으로 우심드끼였지만 이번에는 성수가 나는 것이었다. 여객어(바르) 1945년 8월 8일 저녁이었다. 8월 9일 여객어는 5시경에 청진항구에 불바다를 어루어 놓고 군함에 몰려 왔던 해병대원에게 전부는 각종무기를 걸어 잡고 군함에서 내려 상륙장에 급속히 몰려 타고 해변으로



연막을 띄우고 줄달음치는 것이었다. 한선생도 그 군영 들뜬 속에서  
 대대장과 같이 멀리 불빛이 있는 바다역을 바라보며 자름총을  
 준비하여 쥐고 그와의 접근을 기대하고 있었다. 상륙병들은 큰 전  
 후가 없이 시내의 한부분을 횡단하여 청진 뒷산에 모르게 되  
 었다. 백여명이 별반 넘지 않는 해병 육전대의 기본 사령은 청  
 진시 전후부대와 대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변에 상륙을 성공  
 하고 직후에 같이 숨어 후방을 홀독싱히면서 다음 기본부대의 당  
 도 될 때까지 그곳을 식수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때문에 청진 상  
 육부대는 같은 날 아침에 브조 극점, 소만 극점을 돌파한 소련 군  
 제 25군단 산하 연합부대와 부대들이 북한 후방, 남향, 회령  
 시 등을 경계하면서 청진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한일부 일행의  
 상륙병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청진시에나, 린점 라남  
 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이 무력을 수습하여 가지고 소련상륙병  
 들을 포위하고, 격멸시켜야 기본전술상 법칙이었으나, 기본병  
 려는 안주에 동원되고 남아지신병들로 교체된 몇개의 구분대  
 들은 8월 9일 날 아침 5시 소련군 폭탄 공습과 함포사격  
 에 대패당하고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청진시 부근역 대창  
 고 들은 연기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형포에서, 크지 대항할  
 힘도 없었던 모양이었다. 한일부 일행 육전대는 25군단  
 속군 연합부대들을 맞이한 다음 다시 상륙장을 걸쳐 군항을 타  
 고 뒷산으로 행하였다. 뒷산에도 벌써 2일전에, 즉 청진과



한날 한시에 소련 해방들에 의하여 적군은 적파되고 시내에는  
 소련군 경비가 조직되어 시내 질서를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그러  
 나 전쟁은 어찌 끝까지 않아 휴전이나 원산 시에서는 시정무  
 복들은 조직되었으나 완전 무결한 평화는 유지되지 않고, 여기 지  
 기에서 철사 없이 농노리는 밤낮 들리었다. 더욱 8월 15일 미 퇴  
 자 일벌의 완전이 후항하였으므로 조선 36년이란 기나긴 세월  
 의 식민지에서 해방 되었다. 후항 하였다는 소리가 들리자 감  
 옥에 있던 수라한 예극자, 국제공산당 출신 공산당원, 조선의  
 유전환 민족 예극주비자들이 전체 인민들의 지지하에서 곳곳에  
 서 연변 위원회를 조직하고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초거금을 시작  
 하였다. 이와 병행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당이 조직되었다  
 한일부 선생은 1945년 11월 북하 1946년 1월까지 원산  
 사랑 선전 선동부장으로서 일하시었으며, 1946년 1월 말  
 북하 1946년 6월까지 약 반년간 원산시 당 위원장으로  
 북조선 분당에 속하여 일하였으며, 다음 북조선 노동당이 조직  
 되자 1946년 7월 북하 1949년 11월까지 북조선로  
 동당 강원도 도당 위원장으로 계셨다.

1949년 6월에 김일성은 조선의 무장총일을 준비하면서  
 서 그의 기본로구던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변군대  
 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그의 지로 간부 진영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때에 김일성은 강원도 도당 위원장 한일부

큰 조종하여 해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동쪽 삼관이 시각하자 연원군 해병들은 대군함이나 항공모  
 함은 한대도 없이 다만 10여개의 어뢰정들을 가지고 비교적  
 용감하게 후진하여, 주물진 전후에서 미국 대군함을 침몰식  
 하면서 김군목, 김철성 두명의 공화국 영웅들을 배출하였다.  
 해병들은 유엔군 대군함들과 맞부딪기까지는 동해바다의 모든  
 섬들을 점령하는 동시에 동해바다에서 가장크다고 하는 울릉도  
 도 점령하였었다. 그러나 해병들은 유엔군 해병들을 만나게  
 되자 몇개나 많은 어뢰정들을 모조리 파괴당하고 원산까지  
 후퇴하다 참 목지에 올라 육군으로 고원, 희산 만포진 등 지나  
 만주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후 해군 사령부는 있었으나, 전복다  
 새로 조직하기 위하여 해군 기관 등을 소련에 공학하여 보내었다.  
 바로 이렇게 해군들은 새로운 준비과정을 경과하는 이따이에 바로  
 1952년 11월에 항공사령부에 크디한 비상사건이 생겼다. 11  
 월에 김철성은 아주 낙후된 전후기체를 좀 취세우기위하여,  
 항공사령관 황련에게 과제를 주되: 여성 비행대를 동원하  
 여 전선 진지도 목적 할점, 야간을 리용하여 김포 비행장에  
 주둔하여 있는 유엔군 항공대와 원원북쪽에 있는 원공룡  
 고들을 포격하여 아군들의 전후사기를 높여면서 적군들에  
 게 타격을 주어 새해설을 잘맞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전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녀비행대대장 해선희 비행기가



사리원 근방에 설치하여 놓은 야간비행장에서 뜨러고 하다가  
 약 200 미터 밖에 나가 옥수수밭골짜기에 떨어지고 파손  
 되어 다시는 뜰수 없었다. 비행기는 파손되었으나 그에 적대할  
 폭한 들은 폭파되지 않아 비행중 당행이며 비행사는 살았다.

그런데 최고령관 김일성의 명령은 어떻게 할란 말인가?  
 항공사령관 왕린을 중심으로한, 항공사령부 군사위원 김태권,  
 항공사령부 참모장 기원길, 항공부사령관 리활 등 간부들은  
 최고사령관에게 허위보고를 허기로 결정하고, 최고사령관 동지가  
 주선 전후 임무를 성과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이후  
 남 평양신문들은, 또 평양 라디오 방송은 굉장하게 허위 포격을  
 세계에 자랑하였다. 서울의 바버가 아닌 이상, 서울신문과 방송  
 은 그날밤 적기가 서울상공에 나타난 일은 없었는데 포격은 우  
 른 포격이라고 군속은 방송을 하였다. 이때에 땅에서 (땅에서)  
 이룩하지 못한 해선외 비행사는 침대에 누워 앉으면서 식의를  
 전혀 끊었다. 눈치를 취한 보위성 정치안전부 기관들은 달달 단 41리  
 군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에 허위날조가 증명되자  
 항공사령부 장령들은 전부다 처단을 받았다.

이런 사건의 뒤를 다음 1953년 평월 풍순에 김일성은 항공  
 사령관에 한일부, 군사위원에 최학일, 참모장에 오길두를 임명  
 하였다. 항공사령부에는 큰 폭풍이나 지나간 것 같기도 하였다.

1953년 일년간은 사령부 내 사업들이 잘 수행되 지 않았  
 다. 언제던 세 지르자는 새 작풍으로 사업을 조직지르하는법

이로, 하북에는 자기 육군부대들을 끌어당기어 다 넣기 좋아하는  
 법이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나 항공부대들은 그후전  
 후에 별로 참가하지 못했고, 거저 제1방사기사단 비행사들  
 이 때를 같이 1대 원대씩 전후담직은 수행하였다. 조선 인민군  
 항공부대는 제1방사기사단을 제외하고는 전쟁 3년 동안에  
 병풍으로써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면목으로 전쟁을 종  
 알 짐었다. 전쟁이 끝나자 중국요동반도 각지역에서 기지를  
 두고 전후에 참가하던 항공부대들은 전부다 북한 지역에 기지를  
 옮겨 왔으며, 전쟁시기에 대강 건설하고 전후훈련에도, 또  
 부분적으로 전후에도 참가하던 구형 비행장, 용성 비행장 평양  
 기림리 비행장들은 대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하였으며 새  
 로운 기체들을 많이 구입하여 들이쳐야 했다. 한일부 사령  
 이 새로 사령관으로 들어서자, 전후조직보다 모든 새로 준  
 비하여, 개건하여야 했다. 전쟁 3년 사이에 무엇이 나 다  
 파괴된 나라에 새로운 기술기체들을 구입하여 대단히 어렵었다.  
 특별히 비행기란 매년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비행기  
 들도 도덕적 과일을 당하여 각 전후부대들의 비행기  
 들을 용당 새것으로 바꾸어야 하였다. 한일부 사령  
 관은 이런 형편에서 일하시기에 아주 곤란하였다. 그럼  
 예도 불구하고 한일부 사령관은 기본 전후부대인 제1사 비  
 행기 - 방사기 소령제 - 미그 15형을, 미그 17형으로



교체하고, 낮은 비고-15 형은, 그 때까지 발칸개비가 들어가는 전후기 라-10 으로 장비하였던 제2 비행사단에 넘겨 주는 등 여러가지 무관으로, 전후 실력은 보존하면서 점차적으로 전후 부기를 개량하는 방법으로 비행성원과 기술근무원 성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일무사령관은 막대한 것을 하지 않고 밤낮 노력하여 인준 항공 부대들을 강변으로 결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은 하였으나, 패싸움에 눈이 쌓였을 경우, 아무런 공로도, 현성도, 나라의 충신도 인정하지 않고 과거 비하리산 김일성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몸담 책임적 일에서 축출하고 자기 세습제도를 꾸미는 형편에서 한일무사령관도, 병종사령관 직에서 퇴거될 재간의 없었으며, 4부세의 비상한 지도적 재능을 소유하고서도 제대되었다.



전후 혼란시에 래도하신 변죽보키상에게 혼란과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계시는 한일무사령관.

간부 조동에 수완이 있는 김일성은 한일투 사령관을 조동하여  
직급상으로 볼 때에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상 아무런  
직접적인 명령은 할 수 없는 인종보위성 부상으로 "승급"되었다.  
이것도 임시적이였다. 한일투 사령관은 항공에서 4년 부상  
직무에 1958년 1월 부터 1958년 10월 까지 계시다  
가 다시 전차 조동 되어 몽고공화국 대사관 가게 되  
였다. 아명호는 사상검토 횡결 운동은 결과적으로 근 12년간  
정치적 해심역을 하던 즉 - 동당위원장 3년, 해군사령관  
4년, 항공사령관 4년 한일투 선생의 정치적 생애를 끄어  
서 인제는 아무일도 안하고 평안히 남잠이나 잔수있는 몽고공화국  
대사관 내리 글렀다. 생기 발발하고 용감하던 한일투 선생은  
조국을 등지고 멀리 떠나 몽고로 넘어가서 유목민 생활이나  
만보게 하였으나 전쟁 3년간을 느리든 부상 당한 것은 아니었다  
심장이 딱딱 맞아서, 목구멍이 막히는 같은 역경을 체험하  
면서 이곳에서 양기 시작하였다. 신신히 일할수 있는 사  
람을 평안히 쉬라고 보이여도 타마 병은 재결로 생기는 모양  
이였다. 한일투 선생은 그제야 비로서 어련히 바를 김일성이 "배  
려"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기를 몽고령 유목민의 귀신어  
되라고 "어허이 - 김일성이 육신적 비례를" 배풀어 준것을 알  
게되자, 죽을 때에는 자식들과 친척들이 살고있는데, 사람들의 자유  
롭게 윤택히 자기위사를 활동할수있는 소련당에 가서 죽을 때까지



왜 몽고땅의 귀신이리나, 자기의 생사를 같이하여 투강한 조국전  
 설을 위하여 불후로력하던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눈물에  
 한숨으로 유행사리하고 있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 여생을 보낼생각  
 온전 ~~하~~ 없었다. 때문에 한일우 선생은 53세에 몸이 병이  
 있다는것을 기본 이유로 달아 김일성에게 청원-편지를  
 써 보내고 조선 대사관에 물건들을 제출하여 귀국 수속을  
 한 다음 1961년 11월 24일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한일우 선생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회 총비서인 후르쇼프에게 청원을 드렸던바 그 청원내  
 용은 대개 아래와 같았다: 나는 1941년 하반기에 동원  
 되어 조선공산당을 통하여 국제공산당 집행 위원회 부 관할  
 하에서 움직이게 되었던바 이 때부터 나의 운명은 당과  
 굳게 연결되었다. 그 당시 내가 걸어온 길은 전부터 여러 조  
 선 동포들과 함께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지하 투쟁이었던  
 1945년 8월에 일제로부터 조선을 해방하는 투쟁에  
 직접 참가하였고, 조선이 해방된 첫날부터 나는 조선공  
 산당 노동당 사업에 참가하였던바 중앙선전부장으로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위원장, 조당 위원장 직책에서 일하였고,  
 다음 1949년 부터 4년동안 해군 사령관, 4년동안 항공사  
 령관 직책을 걸쳐서 왔으며 시기에는 몽고인민공화국  
 대사 직책에서 3년간 일하고 현재는 몸이 병이되어  
 일할수 없어 귀국하였사오니 앞으로의 저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이상 한일투 - 수로 1961년 11월 1일.

이상의 편지를 써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에 전달하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한일투 선생은 조직부장의 초청으로 그  
 를 방문한다음 한선생의 년금 문제, 주택 문제 부인의 취직문  
 제 아이들의 공부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바, 년금은 당  
 간부들의 개별적 년금생으로 비를 받고, 사택은 모스크바 중심  
 적 위치라고 할수있는 소련 산업농업전람회 주변 알렉세예프가  
 지하철 역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정받아 한선생은 여성  
 을 그 사택에서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지내었으나 조국에 대  
 한 불만과 통일에 대한 염원등 근심으로 고민하시다가 1970  
 년 8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한선생은 부인 정시나와  
 아들 하나 딸형제를 곁에 앓고 놓고 눈을 감았다.

부인 정시나는 1914년 12월 9일생으로 원주지방 북부시  
 예구역 노취끼업소로 출생하여, 거기에서 1936년에 한  
 선생을 만나 출가하신후 한선생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한 선생을 항상 따라 다니며 다정하게 살면서 한선생  
 의 건강을 감사하였다. 한선생이 비밀공작대원으로 조선  
 해방의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활동하시던 1941-1945년  
 간에는 정시나 양은 한선생이당위원장으로 공작하던 협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공작하시었다 조국에서 돌아오실 이후 정시나  
 사모님을 가정부인으로 자손들을 돌보아 주시며 계시다가



1992년 7월 15일에 모스크바에서 찍히셨다.



1965년에 모스크바에서 찍은 한일목 선생의 가족사진

앞줄에 오른쪽으로 부터: 한일목 선생, 손자 안드레아, 손녀 엘레나,  
정시나이다 사모님, 뒤줄에 왼쪽으로 부터: 최아파나씨 사위, 한세나 장녀, 한말라 이녀  
난 림마 메누리, 한 겐나지 장남.

현재 한일목 선생의 장남 한 겐나지는 러시아 경제 베베레스트로  
이가 생활의 흐름에 적응 하여 자기 가족을 데리고 러시아어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조선 민족 통일 구  
국 전선 일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한국어, 한국 문화 풍습 등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한일목 선생의 사위 최아파나씨는  
조선 민족 평화 통일 구국 전선 사무총장으로 구국 전선  
사업을 구 소련 전역에서 열성적으로 조직 지도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1997년 10월 21일